

7월의 시

이해인

7월은 나에게

치자꽃 향기를 들고 옵니다.

하얗게 피었다가

질 때는 고요히

노랗게 떨어지는 꽃

꽃은 지면서도

울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물을 흘리는 것일 테지요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내가 모든 사람들을

꽃을 만나듯이 대할 수 있다면

그가 지닌 향기를

처음 발견한 날의 기쁨을 되새기면서

설레일 수 있다면

어쩌면 마지막으로

그 향기를 맡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 삶 자체가 하나의 꽃밭이 될테지요

7월의 편지 대신

하얀 치자꽃 한송이

보내는 오늘

내 마음의 향기도

받으시고

조그만 사랑을 많이 만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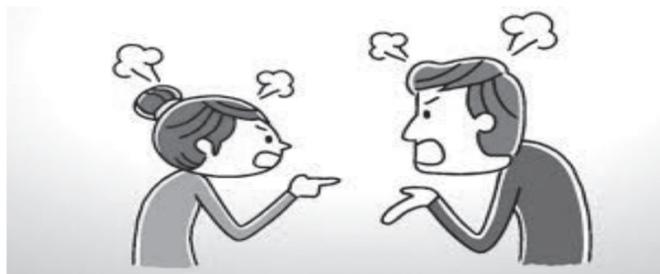
향기로운 나날 되십시오

<종교컬럼>

오윤명 목사
캘거리 생수 교회 담임



누가 나의 적인가?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얼마 전에 한국을 휩쓸었다고 한다. 남편의 배신으로 가정이 깨어지고 증오와 복수로 삶이 망가지는 부부의 이야기라고 한다. 그 드라마처럼 살벌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부들이 서로를 미워하면서 산다.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면서 살아 가고 있다. 한국의 이혼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혼하는 커플이 2017년에는 106,000건, 2018년에는 109,000건 그리고 2019년 111,000건 이었다. 실제로 이혼한 것은 아니지만, 정서적 이혼상태로 지내는 부부, 별거하는 부부, 졸혼한 부부 등을 따지면 이혼율은 훨씬 더 올라갈 것이다.

부부 싸움은 당연한 것이다. 서로 다른 환경, 교육수준, 성격, 경험, 가치관, 가정의 문화 등을 가지고 30여년을 살아온 사람들이 갈등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갈등이 아니라, 갈등을 다루는 방법이다. 갈등을 다루는 다양한 방법들은 책, 교육프로그램, 영상자료 그리고 상담 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방법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 12:4)

성경은 우리가 피 터지게 싸워야 할 대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그 대상이 바로 '죄'이다. 성경은 죄를 마치 인격체처럼 말하고 있다. 죄가 힘을 지니고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죄는 우리 위에 군림하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더욱 자신에게 복종하도록 만든다. 그것은 중독과 마찬가지로이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술이 술을 먹는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술이 사람을 먹는다. 술에 중독이 되면 더 이상 술 없이 살 수 없게 된다. 술을 먹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다. 돈이 없으면 거짓말을 하고, 훔쳐서라도 술을 먹게 된다. 술에 빠져들면 예외 없이 직장에서 잘리게 되고, 가정도 깨어진다. 인생이 망가지고 파멸하게 된다. 술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다.

죄도 그와 같다. 처음에는 내가 죄를 짓지만, 지속적으로 죄를 짓다보면, 죄가 죄를 부른다. 그리고 그 죄가 나를 부른다(나를 다스린다). 죄는 산꼭대기에서 흘러내려오는 눈덩이와 같다. 아주 작은 눈 덩어리가 산꼭대기에서 굴러오기 시작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눈덩이는 더 커지고 단단해지고 힘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마을까지 굴러오게 되면 많은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끼치게 된다. 죄는 내 인생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망가뜨린다.

무엇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가? 내가 지은 죄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 부부가 이혼하게 되는가? 내가 지은 죄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 가정이 지옥으로 변하는가? 내가 지은 죄 때문이다. 내 죄만이 아니라, 배우자가 지은 죄도 당연히 영향을 끼친다.

일단 삶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기보다는 외부로, 혹은 나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로 돌리게 된다. 이것도 죄가 하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부부 사이에 서로를 향한 원망과 분노, 비난, 욕지거리, 심지어 폭력의 행사까지 개입된다. 이런 행위들이 죄이다. 이 죄는 가정을 더 망가뜨린다. 더 깨뜨린다. 더 지옥으로 변하게 만든다.

성경은 배우자와 싸우라고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배우자를 적으로 삼으라고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서, 그 갈등을 다루고 감정을 푸는 과정에서 언쟁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배우자는 나의 적이 아니다. 나의 적은 바로 죄이다. 내가 범하는 죄, 그리고 상대방을 지배하고 있는 죄가 우리의 적이다. 그것이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대상이다. 나의 적은 나에게 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상대방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뒤에 숨어 있는 죄이다. 우리는 그 죄와 싸워야 한다.

죄와 싸우는 첫 번째 단계는 상대방의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와 싸우는 것이다. 상대방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뒤에서 욕하고, 상대방을 자극하는 나의 죄, 그것이 내가 직면해야 할 첫 번째의 죄이다. 나의 첫 번째 적이다. 죄와 싸우려는 의지와 결단과 노력이, 부부 사이에 있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자세이다.

현량자고(懸:매달 현/ 梁:대들보 량/ 刺:찌를 자/ 股:넓적다리 고)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현량'은 머리카락을 대들보에 묶고 공부하던 모습에서 유래된 것이다. 조느라고 고개를 숙이면, 대들보에 묶인 줄이 머리카락을 당겨서, 잠에서 깨어나게 된다. '자고'는 졸리면 허벅지를 송곳으로 찌르면서까지 공부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우리의 적은 배우자가 아니다. 우리의 적은 죄이다. 배우자 안에서, 내 안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죄이다. 전쟁에서는 조준을 잘해야 한다. 잘못 조준하면 우리 편을 죽이게 된다. 배우자는 적군이 아니라, 우리 편이다. 죄의 포로가 된 아군이다. 비록 내가 죄의 포로가 되어, 죄를 지어도, 나 자신을 아군으로 여기는 것처럼, 죄에 묶인 배우자도 적군이 아니고 아군이다. 우리는 배우자가 아니라, 우리의 죄, 그리고 배우자의 죄와 싸워야 한다.

얼마만큼의 강도로 죄와 싸워야 하는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공부할 할 때 졸리면 송곳으로 허벅지를 찌르는 것처럼, 그 만큼의 강도로, 아니 그보다 더 큰 강도로 싸워야 한다. 내가 내 죄와 싸운 삶의 흔적이 나의 허벅지에 남아 있는가? 배우자를 욕하고, 비난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뒤에서 헐뜯고, 욕지거리와 폭력을 사용하도록 부추기는 죄의 힘 앞에서, 내 허벅지를 송곳으로 찌르면서, 그 유혹과 힘에 맞서서 싸워본 적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상처 난 허벅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

상처 난 허벅지는 배우자와의 관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단지 죄와 싸우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바꾸어 행하기 위한 것이다.

악(죄)에게 지지 말고 선(죄)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

손을 들어 누군가를 때리고 싶은 충동과 에너지가 있다면, 누군가를 깨우는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 우리는 자신의 허벅지를 찌르고 꼬집어야 한다. 즉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로 애원하면서, 부정적 에너지를 긍정적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주님의 뜻대로 하는 우리의 기도에도,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면 승리하는 빈도가 더 많아질 것이다. 많은 분들의 입을 통해 이런 승리의 간증이 나누어지게 되기를 소망해 본다.